

*공공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순 광야 체험에서 우리의 마지막 도전은 용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용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호를 긋는 것과 어떤 종교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대한, 또 우리의 입장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기독교의 견해를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수난사’를 묵상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많은 부인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 도망가고,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힐 때 멀리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용기 부족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가 성호를 긋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에 침묵할 때, 우리는 아마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열정 안에서 6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이야기의 시작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둘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분께 향유를 바르고; 셋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마르코 성인 복음서에서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은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는 다른 두 이야기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 이경우, 그는 이 여인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 일로 삼백 일 분의 임금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비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마르 14:6). 우리가 성호를 긋거나, 우리 삶에서의 예수님의 중요함,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좋은 일을 합니다.

2)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14:18)고 발표하시며, 그것이 누구인지는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메리 힐리 박사는 이에 대한 두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14:21).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앞서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8:38).
- 나는 공공장소에서 성호를 긋는 것을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부끄러워하실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듯, 성호를 긋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구들과 앞에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인기 없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울 때와 같은 역학입니다.

3) 예수님과 사도들이 올리브 산에 갈 때에 그분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를 꾸짖고, 너의 불륜을 꾸짖을

것이다(?)”(14:27-28). 아니, 잠시만요. 거기에는,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야로 갈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불쾌하게 하고 작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배반한 뒤에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과 용서하시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용서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께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세 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4)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여라”(14:38).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경각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시련에 대비하고 있나요? 곧 시험을 받을 예정이라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그 수난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그 분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그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분의 아버지, 그 다음 우리입니다. 이것이 용기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본성 안에서 용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아버지를 간직 하였기 때문입니다.

- 마르크 성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람 말을 사용했다고 기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14:36). “예수님 이전의 어느 누구도 이런 대담한 친밀감의 말로 하느님과

이야기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애정 표현으로 마르크는 예수님의 순종이 단순한 체념이 아닌,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Mary Healy, *The Gospel of Mark in Catholic Commentary on Sacred Scripture*, 292)

6) 샌드위치 기술은 다음에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성인은 안뜰에서 예수님의 제자인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성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성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분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아버지께 충실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묘사된 방법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VqgXrxVhwE>

0:00-1:25).

-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이십니다: 우리 방식대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바오로 성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 20).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 생각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2주 전인 3월9일, 캐나다 주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백신 접종 중 선택권을 제공할 때는 가능한 한 항상 낙태로 얻어진 세포 라인과 가장 연관성이 적은 백신을 선호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https://www.cccb.ca/wp-content/uploads/2021/03/CLARIFICATION-CCCB-Statement-on-COVID-19-Vaccine-Choice-9-March-2021-EN.pdf>).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 낙태가 살인이라면, 우리는 낙태로 죽은 사람들의 세포 라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교들은 “모데나와 화이자 백신은 백신 개발과 생산에 낙태로 인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지막 실험 과정 중 일부에서 그들은 비 윤리적으로 파생된 세포를 사용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이용 가능한 이 두 가지 백신은 낙태와의 연관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들 백신과는 대조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 앤 존슨 백신은 그들의 개발, 생산, 확인 실험에 낙태로 얻어진 세포 라인을 사용했다.”

- 크리스찬 두베, 퀘벡 보건부 장관은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나는 이 성명을 강력히 비난한다..모든 퀘벡 사람들이 우리의 전문가들을 신뢰하도록 권한다: 우리가 투여하는 모든 백신은 효과적이다”(<https://montrealgazette.com/news/quebec/dube-lashes-out-at-catholic-bishops-for-suggesting-some-vaccines-are-more-morally-acceptable>). 그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우려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가 훌륭한 캐나다의 특성으로 여기는, 우리의 도덕적 우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주교들의 진술을 마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왜곡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면한 도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비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주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수난’을 보십시오. 그것은 일종의 묵상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사회 앞에서 그분을 따를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고통 받으실 때,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 찬미 예수님

3월 27/28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 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기도중 낙태종식에 대해 한번쯤 묵상해 보시고, 낙태 종식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뒤편하시는 분도 오직 하느님 한 분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소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당신의 은총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태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낙태의 위험 앞에 놓인 모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낙태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태아들의 수호자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March 27-28,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3; Lent, Year B, Palm Sunday

아멘.